**"아세안을 품에 안고 글로벌을 꿈꾼다"**

**2016년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과정 모집**

- 베트남 100명 / 미얀마 20명 / 인도네시아 40명 선발 예정 -

한국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회장 장병주)의 글로벌청년사업가(Global YBM) 2016년 양성과정 참여 연수생을 모집한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대우세계경영연구회 홈페이지([www.daewoosky.com](http://www.daewoosky.com))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월드잡([www.worldjob.or.kr](http://www.worldjob.or.kr))을 통하여 지원접수를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를 선택한 후 양쪽 기관에 모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자격은 만 34세 이하의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2016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영어로 수학(修學)이 가능하고, 해외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그리고 지원하는 국가에 연수 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8개월 이상 해당국가에서 연수한 사실이 없거나 체류사실이 없어야 한다.

본 과정의 특성상 장기간 국내외에서 강도 높게 연수가 진행되고, 수료 후에는 현지 연수한 국가에 일정기간 이상 정착을 조건으로 하므로 문화와 환경이 다른 국가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취업 및 창업의지가 확고하고 도전정신이 충만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한다. 그리고 연수가 진행되는 동남아 지역은 일본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진출해 있고 일본과의 비즈니스가 많은 관계로 기본조건인 영어 외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자에게는 우선선발의 기회가 주어진다.

본 과정 참가자에게는 교육기간 중 교육비, 숙식비, 항공료, 상해보험료, 문화탐방비 등 연수에 따른 비용 전체를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지원하므로 개인은 선발 시 일부 비용과 연수과정 중 개인적으로 필요한 용돈만 준비하면 된다.

그 동안 6년째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대우세계경영연구회 관계자에 의하면 인성과 끈기, 현지인과의 소통이 가장 요구되는 해외 취업의 특성에 맞게 극기훈련은 물론 현지어, 비즈니스 영어, 직무 등 경영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강도 높게 교육시킨 결과 수료자 전원을 수료 전 현지의 기업에 취업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한다. 취업조건 역시 국내 중견기업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고 하니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도전해 볼만하다.

특히 본 과정은 정부의 K-move사업과 연계되어 그 신뢰성이 매우 높고, 연수기간 동안은 물론 연수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니 국내 청년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요즈음 남다른 도전의식으로 해외진출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본다.

본 과정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2016년 글로벌청년사업가 모집요강을 참조하거나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사무국(02-6366-0090~93, daewoosky@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